

온실 수박,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려면?

최소 15°C 이상 유지

열매 달린 뒤 2~3일 간격으로 물 줘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겨울 추위와 따뜻한 날이 반복되는 이상기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에서 재배하는 수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수박은 고온성 작물로 겨울에는 주로 남부지역 온실에서 재배한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에서 비닐 절감을 위해 별도의 난방시설 없이 보온만으로 비닐온실 온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수박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려 자라게 하려면 최소 15도(°C)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밤낮 기온 차가 크거나 최저 온도가 15도(°C) 밑으로 떨어지면 수꽃의 꽃밥 터짐(개약)이 좋지 않고 꽃가루 힘(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기형 열매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온실에 부직포 등 보온자재를 준비하거나 이주시기 전 전열선을 설치해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재온기 수박 재배지의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토양 수분은 수박 수정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 수정 3~4일 전 토양 수분 상태를 관찰하고 건조하다면 미리 물을 대줘야 한다. 열매가 갓 달리기 시작할 때 물을 주면 열매보다 식물체 자람이 왕성해져 열매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열매 크기는 수정 후 12일 안에 결정되므로 열매가 달린 뒤에는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2~3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질소와 칼륨질 비료를 공급한다.

수정은 식물체가 충분히 자라서 적정 일 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도해야 한다. 최저기온이 15도(°C) 내외이면 어미덩굴은 20마디 이상, 아들덩굴은 15마디 이상 뻗을 때 열매 맺도록 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 수박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수박의 당도를 높이려면 식물체가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터널 비닐을 걷어줘야 한다. 옷겨름은 열매 달린 후 20일 이내까지 주고, 마그네슘은 초기부터 열매 달린 후 2주까지 지속적으로 잎에 직접 준다. 토양 특성에 따라 수확 10~15일 전 물대기를 멈춰야 당도를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이번 겨울은 지난해와 달리 강추위와 따뜻한 날이 반복되는 이상기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시설 재배 수박의 환경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고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복은행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아는 것이 돈이다'

전복은행, 유튜브 채널 통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JB금융그룹 전복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금융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용등급제에서 점수제로 평가기준 변경 ▲오픈뱅킹 서비스 저축은행까지 확대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시행 등 금융업무 시 알아두면 유용한 핵심 정보를 JTVR라디오 행복발전소 진행자인 장혜라씨가 출연해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냈다. 전복은행은 지난해 고객과의 소

통 확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해 ▲알기 쉬운 금융사고 대처법 ▲도청직원과의 지역 맛집 추천 대결 ▲은행원의 일상생활을 다룬 브이로그 등 어려운 금융 무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구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복은행 관계자는 "올해까지 이어진 개인 투자 열풍으로 유튜브의 금융 정보를 토대로 본인의 자산 및 신용을 관리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주린이(주식+어린이)를 위한 투자 강의,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을 위한 스마트뱅킹 이용 교육 등 평소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고객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 현장 의견 수렴하는 대의기구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필요"

농식품부 개최 전문가 좌담회서... 정체성 확립에 "농업인·농민단체 등 상호협력 통해 설립돼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월 16일)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선 전문가들은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할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의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설립돼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강화할 경우 회의소 설립 장애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표성 확보와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 설립 요건을 균형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제화 이후 회원 가입제에 대한 검토도 논의됐다.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유럽의 농업회의소나 초기 상공회의소처럼 의무 가입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회의소 운영과정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소 의무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집행 관련 지침상 지원이 제한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기존 회의소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7개 회의소(기초조직 16, 광역조직 1)의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인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이라며 "모든 농어업인과 농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로컬푸드 직매장 내 출하 농산물 가격 경쟁력 향상

전북농협, 주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영농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 출하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로컬푸드 주간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의 조직화 지원과 로컬푸드 가치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 서비스는 한 주간 기상정보, 영농 분야별 기초정보·기술, 주요 품목에 대한 공판장 시세 등이 종합된 자료로 5분 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매주 월요일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로컬푸드 출하농가는 유튜브 채널 '전북농협 로컬푸드'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 수집된 기초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게 모바일 홈페이지(www.jnhlocal.com)도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요즘 같은 정보



전북농협 로컬푸드 주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홍수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본 서비스를 지역본부, 로컬푸드 참여 농협과 출하농가의 소통채널로 활용해 유통혁신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 관계자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해 지난해 말 전년 대비 27% 상승한 매출액 73억 원을 달성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농생명 산업분야 대학 우수 졸업생에 포상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생명 산업 분야 우수인력 양성과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38명을 선발해 청장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상 대상자는 농촌진흥청과 연구교류협약(MOU)을 체결한 전국 52개 대학 가운데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학생(대학별 1명)을 추천 받아 선발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소속 대학별로 자체 졸업식을 통해 우수 졸업생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1996년, 충남대학교를 시작으로 국내 우수 대학과 농생명 과학 분야 미래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교류협약을 맺고 있다. 현재 국내 52개 대학과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우수 대학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기관과도 협약을 통해 농생명 과학 분야 연구개발과 교류를 넓혀갈 계획이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농생명 산업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 이번 포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코로나19 백신 보관 의료용 초저온 냉동고 확보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보관을 위한 의료용 초저온 냉동고를 확보해 백신접종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냉동고는 미국 직수입 NUAIRE사의 NU9828 초저온 냉동설비로 영하 40도에서 영하 86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 4만9천 바이알의 백신을 보관 할 수 있다.

예수병원은 원내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통해 안전한 백신 투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1분기 내에 모더나 백신 보관 초저온 냉동고 1대와 해동 냉동고 1대를 추가로 더 확보해 국민 안심 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철승 병원장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북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